

“AI 빅데이터 이용해 난치성 통증 연구” 과학기술원 공동 연구단, T3Q와 업무협약

-17일(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기업 티쓰리큐와 협약 체결



▲ 17일(화) 지스트 다산빌딩에서 과학기술원 통증연구단과 T3Q(주)(티쓰리큐(주))가 난치성 통증-인공지능 협력연구를 위한 MoU 협약식을 개최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티쓰리큐(주) 박병훈 대표, 과기원통증연구단 정의현 단장(지스트 의생명공학과 교수)

과학기술원 공동 난치성 통증 연구단(이하 과기원통증연구단, 단장: 지스트 의생명공학과 정의현 교수)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업과 손잡고 AI를 활용한 난치성 통증 연구에 나선다.

과기원통증연구단은 17일(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T3Q(주)(티쓰리큐(주), 대표 박병훈)와 난치성 통증 분야 진단 및 치료 관련 빅데이터 수집과 인공지능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난치성 통증 분야의 임상 및 전임상 데이터에 대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환경 조성 및 빅데이터 기반 AI 기술들을 활용한 연구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식은 5월 17일(화) 과기원통증연구단 연구진과 티쓰리큐(주) 박병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의생명공학과 '이종현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과기원통증연구단은 난치성 만성통증의 신경학적 기전 규명을 통한 객관적인 진단 및 정밀신경조절 기반의 비약물적 치료법 개발에 따른 통증 진단 및 치료 시장 개척을 목표로 지난 2019년 4개 과학기술원 공동연구를 위해 출범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를 주관기관으로 KAIST, DGIST, UNIST, POSTECH과 전남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주)뉴로핏, (주)비스몹, 특허법인 웰 등 대학·병원·기업이 협력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티쓰리큐(주)는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기업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통합 실시간 지능화 플랫폼(T3Q.ai/T3Q.ai Cloud) ▲H/W와 S/W 일체형 Edge 인공지능 플랫폼(T3Q A-Box) ▲시뮬레이션 솔루션(T3Q AI Service Package) ▲실시간 지능화를 지원하는 통합모니터링 솔루션(T3Q E2E Package)이 있다.

연구단장인 정의헌 교수는 “이번 티쓰리큐(주)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첨단 신경과학과 AI 기술을 융합해 난치성 만성통증 임상 적용 및 통증 치료 리빙랩 활성화 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